



◇스님, 선생님들과 친구처럼 어울리며 밝은 표정을 지은 입학식들은 부모 곁을 떠나 진정한 홀로서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의사, 교수, 교사, 귀농자 등 대부분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홀로 남겨두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불교계 최초의 대안학교 학생을 두었다는 자부심을 내비쳤다.

## 교계 첫 대안학교 '실상사 작은학교' 문열다

# 지리산을 배움터 삼아 '자율의 삶' 익힌다

"애들이/지리산의 아들 딸들이/ 이제 너희들의 교과서는 풀과 나무와 새와 짐승과 해와 별과 달/ 너희들의 교실은/ 천왕봉과 벽소령과 반야봉과 노고단/ 이제 너희들의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 지리산이다/이원규 시인의 '애들이, 지리산의 아들 딸들이' 중에서

4일 지리산 일대에 폭설이 내리던 날, 남원 실상사 주지 도법에서는 불교계 최초의 대안교육 도량인 '실상사 작은학교'가 문을 열었다.

마치 입학식을 축하이라도 하듯 상서로운 눈발이 펄펄 내렸지만, 실상사 작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지현·심신스님) 소속 스님들과 남원군수 등 지역 인사들은 도로 불통으로 되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입학식 15명의 학부모들은 미리 눈길을 헤치고 빠짐없이 참석해, 새로운 불교적 교육실현의 출발을 기대반 걱정반으로 축하했다.

작은학교 설립추진위원인 지장스님의 축사와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의 인사말, 학부모들의 축하, 입학식들의 다짐 발표 등으로 진행된 입학식은 실상사 스님과 교사, 학부모, 입학자들이 하나된 감동깊은 자리였다.

특히 교육의 세 주체인 입학생 학부모·교사 대표들은 저마다 상기된 표정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불교 대안교육의 새 장을 열겠다는 발원을 세웠다.

"나는 열세살, 아직은 어리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집과 부모님, 정들었던 초등학교 시절의 동무들을 떠나 지리산 자락에서 '실상사 작은학교'라는 배에 탑승했습니다. 노를 짓는 우리들의 팔목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뜻을 단단히 잡아주시고, 부모님들께서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세요." 입학생 최예슬

"우리 학교는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배울 수 있는 태도와 관점을 키워, 아이들이 자기 발견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경재 교사대표)

"사실이 지리는 용기와 믿음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이들이 곧 사랑으로 뛰어 터 흙에 툭툭하게 뿌리박고, 햇볕을 바라보고, 비바람 헤치고 역세게 자라나길 합장합니다." (예슬이 아빠 김준영씨)

8명의 교사와 3명의 강사를 확보하고 15명의 학생을 선발, 이날부터 본격적인 불교 대안교육비인가 중등과정과 나산 작은학교는 한동, 한 생명의 연가적 세계관에 기초해 생명의 존엄성과 더불어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전인교육을 지향한다.

교과 교육 중심의 획일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일반 도시학교와는 달리 자연을 벗삼으며 문화체험 및 자율활동에 무게를 둔 작은학교는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입학생도 똑

물, 글짓기 등으로 자신의 특기와 개성을 살리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학교 앞 뒷밭에 각종 채소를 기르고 돼지와 닭 등을 사육, 주식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지립정신을 키우게 된다.

작은학교는 아직 전용 학사를 갖추지 못해 실상사 사중 큰방과 약사전 뒤편 콘테이너에 임시 교실을 마련한 상태이지만, 상반기내에 실상사 인근 신내면 백일리에 위치한 환경농업교육장에 학사를 지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은학교 설립추진위는 학사 마련 및 안정적 운영기금 확보와 불교 대안교육 확산을 위한 역량 축적 및 포대구축을 위해 3억원을 모금하기로 하고 모연(募緣)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작은학교는 3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어렵게 출발했지만, 최근 대안학교의 대표적인 산청 '간디학교' 중학교 과정이 경남도교육청의 해산 명령 방침으로 위기에 처한 것처럼,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경남도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중등과정의 대안학교를 인정하는 추세여서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내년부터 중등교육과정의 의무교육이 실현될 경우를 대비해 '특성화 중학교' 등의 인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작은학교의 정신적, 물질 토대를 제공한 인드라마평생교육진흥재단 대표인 도법스님은 "평화·노작(勞作)·인간화교육을 지향하는 대안교육은 불교적인 정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면서, "조계종 24개 교구본사마다 1개씩의 대안학교를 만들면, 농촌에 위치한 사찰의 지역주민과의 융화는 물론 인성을 갖춘 불교 앞군을 양성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63636-3369

남원=김재경 기자(jkim@buddhapia.com)



◇지난해 여름 실상사에서 열린 청소년 그림·글짓기대회.



◇작은학교가 지난해엔 '청소년 여름학교'의 농사체험 장면.

대안교육은 19~20세기에 개발중심의 근대적 가치가 생존경쟁의 가치로서 사람 사이의 유대를 단절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며, 자연과의 친화력을 약화시키고 비인간화를 부채질하는 교육에 대한 반기로 나타난 운동이다.

영국의 교육가 A. S. 닐이 1921년 설립한 섬머힐(Summer hill, I. 일리치)가 제창한 탈학교교육(Deschooling) 등으로 시작된 대안학교는 지식 위주의 기존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는 다양한 실천운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교육법에서는 대안학교를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전수를 교육목

### 대안교육이란

### 비인간화 교육에 반기 영 섬머힐 1921년 설립

표로, 학습자 중심의 비정형적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방식을 추구하는 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대안학교는 운영형태에 따라 정규학교형, 계절학교형, 방과후 프로그램형 등을 비롯 △학생의 잠재 가능성을 살리는 '자유 학교형' △생태적 공동체학교를 지향하는 '생태 학교형' △부적응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재적응 학교형' △종교신앙과 철학사상 등을 추구하는 '교유이념 추구형'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 대안학교는 고등학교 과정 11개교와 15개의 전통 서당 등 수십여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정규교육과정의 파행으로 말미암아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 정세채와 떠나는

## 선·식·기·행

### 오가피차



"에, 원종(圓宗)아! - 미련하게도 생긴 네 놓이 중이 되기는 했다마는 중노릇도 제대로 할성실치 않구나. 중도 상관이 어지간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겨먹어도 그렇게 생겼노? 찰싹 밥 먹었으면 구물대지 말고 밥에다 거름도 내고 나무도 해와야지."

이때,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법명은 원종이었다. 1899년 23살 때에 공주 마

곡사의 용담화상을 계사로 해서 사학했다. 사문(待門)에서는 터럭만듬의 그 어떤 아실도 허용되지 않았다. 평생의 한(恨)이던 상민의 곱질을 벗고 양반들을 내려다보며 살겠다고 17살에 동학에 가담한 이후, 관군에 쫓겨 도망치다 민비 시해소식을 들었고, 황해도 안악(安岳)에서 일본 육군 중위 스키다를 죽였다. 법정에서 곡모를 시해한 원수를 갚았다

### 담 없애주고 관절질환에 효과

하여 사형이 확정되었지만 고종의 특사로 형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일본공사 하야시의 압력으로 출옥이 어려워지자 1898년 인천 감옥을 탈출, 마곡사에 은신하여 불도를 닦고 있었다. 당시의 가명 김창수라는 동학의 절주를 버리고 다시 김구로 태어나는 계기는 이렇게 공주 마곡사 신검당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2년 간 인천 감옥의 일은 꿈만 같았다. 뼈가 터져 나오는 고문을 견뎌 끝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마곡사에서 만난 해명 스님의 권유로 오가피를 산에서 뜯어다가 아침 저녁으로 상

복했다. 오가피차 두 달을 먹자, 누시고 깨어질 듯한 두통이 사라지고 6개월을 먹자 동학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던 본연의 모습, 김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후 김구선생은 인천 감옥에서 함께 고생하다 출옥한 사람들에게 오가피 곱질을 나누어주며 신세를 갚았다. 그 후 1949년 73세의 경교장에서 운명하던 순간까지 김구 선생은 오가피차를 즐겨 드셨다. 오가피는 원기회복과, 관절, 류머티즘 등의 뼈 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오가피 30g, 물 2컵  
요리법 오가피를 깨끗이 씻어 물이 반 정도 분량으로 뜰 때까지 끓인 후 배보자기에 거른다.

효능 기(氣)를 원활하게 해 주고 담을 없애는 좋은 음식이다. 간과 신장에 이로운 작용을 하며, 각종 풍과 습으로 인한 관절 통증과 무릎, 손발 등의 모든 뼈 질환을 치료한다. 또, 근육과 뼈를 보호하여 간과 신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작용이 있다. 술에 담겨 먹어도 아주 좋다.

